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4:6-7)

춘천성시

창간 1998년 9월 15일 2019. 11. vol. 234

♥ 후원참여하기 ♥
 신협 131-005-937566
 예금주 춘천성시화운동본부
기사제보 및 광고문의
 TEL 033)256-1260 FAX 257-1260
 HP 010-9698-2993

전 교회가 전 복음을 전 시민에게 전하여 행복한 가정 · 건강한 교회 · 깨끗한 도시를 만드는 춘천성시화운동



성시화

성시운동은 행복을 향한 몸부림입니다

성시운동 곧 거룩한 도시를 위한 운동은 어떤 이들에게는 거부감을 어떤 이들에게는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성시운동은 행복을 향한 몸부림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애굽땅에서 너희를 인도해 냈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 11:45)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죄를 가진 인간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고 그 얼굴마저 쳐다 볼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죄를 밥 먹듯 하는 인간들로서는 감히 하나님께 다가 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만일 죄가 없는 상태라면 어떤 상태일까요?

즉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렇습니다. 주체 할 수 없는 기쁨의 동산에서 더 이상 행복할 수 없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시운동에 거부감을 느끼거나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이 된 것은 바로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 씻김을 받으며 칭의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라면 내면의 천국 곧 지금 내가 사는 곳이 주님을 모신 천국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죄와 싸우는 삶을 살아야 하고 이것은 곧 천국을 지향하는 삶, 행복을 향한 몸부림이 되는 것입니다.

성시운동, 곧 거룩을 향한 운동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하나님 나라 운동입니다. 내가 사는 삶의 터전, 이웃과 직장에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 위

한 운동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요 왕이 되시고 그 왕 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 그 곳이 바로 에덴동산이요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시운동은 성도들의 기본적인 삶의 목표요 내용이야 하고 모든 교회의 비전이여야 하고 모든 목회자의 목회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시대에 팽배한 이기주의, 개인주의가 교회에도 흘러 넘쳐 내 교회, 내 신앙만 지키려 한다면 이건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먼저 부르심 받은 성도들이 일어납시다. 교회가 성시운동 곧 살림운동, 행복운동을 위해 일어섭시다. 우리 모두의 공동의 선이며 함께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때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글. 박인관 목사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이사장, 광명교회)

춘천성시화운동본부

발행인 이 사 장 박인관
 부이사장 이수형
 춘천기독교연합회장 김종익
 발행처 춘천성시화운동본부
 강원도 춘천시 금강로120 302호
 T033-256-1260 F033-257-1260
 E-mail : holycc1972@daum.net

CONTENTS

- | | | | |
|------------------------------|----------------------------|----------------------|-------------------|
| 01 성시화 나라가 임하시오며 | 04 전도사관학교/선교 | 07 특집 2 추수감사, 성탄절 | 10 기관 · 교계소식 |
| 02 성시화 2019 성시선교대회를 마치며 | 05 기획 3·1운동 100주년 기념 기획 | 08 건강/기관 · 교계소식 | 11 기관 · 교계소식 |
| 03 성시화 목회자 세미나 국제성시화대회 | 06 특집 1 종교개혁 | 09 기관 · 교계소식 | 12 알려드립니다/ 후원자 |

2019 춘천성시선교대회를 마치며

10월 6일부터 12일까지 “나라가 임하시오며(마6:10)” 라는 주제로 “47주년 2019 춘천성시선교대회” 를 개최하였다. 이번 춘천성시선교대회는 춘천기독교연합회, 목회자연합회, 홀리클럽, 복지단체, 선교단체들이 연합하였으며 일정은 오전 목회자 세미나, 저녁집회, 전도사관학교, 청소년축제, 블레싱춘천, 글로벌 6Km 걷기대회로 진행되었다.

저녁집회 10월 6일(주일) ~ 9일(수)



집회 주제 : 변화의 속도가 성장의 속도다(행9:31)/ 강사 : 김홍양 목사

10월 6일(주일) - 역전인생 반전인생(눅5:1-11)

베드로 어떻게 변화되었나?

1. 찾아 오셨다 - 큰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 왔으나 변화된 것은 베드로였다. 베드로의 변화 가능성을 보았기 때문이다.
2. 권면하셨다 -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억지로라도 권면을 따랐다. 그물을 던진 깊은 곳은 베드로 수준에서 깊은 곳이었다. 베드로는 그물이 찢어지고 두 배에 차도록 고기가 잡히는 경험을 하였다. 베드로는 역전인생을 경험한 것이다.
3. 기다리셨다 - “나는 죄인입니다. 떠나소서” 베드로는 자신의 죄를 고백했다. 주님은 함께 하시고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 이것이 반전인생이다. 베드로는 역전인생에서 멈추지 않고 반전인생을 선택했다.

10월 7일(월) - 저축인생 성령인생(엡5:15-18)

신앙인생이 잘 되기 위한 성경의 5가지 저축

1. 기도 - 물질의 십일조뿐 아니라 시간의 십일조를 드려야 한다. 기도를 저축한다
 2. 체험 - 하나님 체험을 통해 즐겁게 신앙 생활할 수 있으며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3. 지혜 - 뱀같이 지혜롭고(마10:16),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껴라(엡 5:16).
 4. 사랑 -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도 사랑해야 한다(요일4:7-12).
 5. 영혼 - 이 땅에서 가져 갈 수 있는 것은 영혼 밖에 없다.
(손가락 전도법: “가라- 주라- 하라- 오라- 보라)
- 5가지 축복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능하게 된다(18절).

10월 8일(화) - 헌신인생 기적인생(마7:13-14)

성경의 두 가지의 핵심은 기적과 헌신이라 말 할 수 있다.

1. 기적은 하나님의 몫이다.
내가 이해 안 되도 하나님이 하셨다면 기적이다. 성경에 기적의 내용이 반이라면 나머지 반은 헌신이고 그 끝에는 사람이 등장한다. 인간의 헌신과 하나님의 기적이 만나는 것이 성경이다.
2. 헌신은 나의 몫이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13절). 좁은 문은 생명 문이며 이곳으로 들어가는 것이 헌신이다. 예수님은 길, 진리, 생명이시며(요14:6) 양의 문이다(요10:7). 예수만을 바라보는 것을 헌신의 시작, 출발이라 할 수 있다.

10월 9일(수) - 교회인생 성장인생 (행12:1-17)

1. 나쁜 4명
 - 1) 헤롯 - 헤롯은 권세를 가졌다. 그러나 헤롯은 권세로 교회를 박해했다.
 - 2) 유대인, 유대인백성 - 메시아와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박해했고 헤롯에게 동조했던 사람들.
 - 3) 군인들 - 죽이는 것을 서슴지 않았고 잔인함을 자랑 삼았던 사람들.
 - 4) 파수꾼들 - 군인들과 감옥을 지키는 사람들, 더러운 쪽에 함께 앉은 사람들.
2. 좋은 5명
 - 1) 야고보 - “나는 교회를 사랑한다. 교회를 위해 죽을 수도 있다.” 죽기까지 교회를 사랑했던 사람. 순교하더라도 교회를 지키겠다고 했던 사람.
 - 2) 베드로 - “나는 교회를 사랑한다. 갇힐 수도 있다.” 교회를 위해 갇히기 까지 하고 자기의 자유를 다 내 놓은 사람. 교회는 내가 와서 은혜만 받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고민하는 곳이다.”
 - 3) 마리아 - “나는 교회를 사랑한다. 내 집을 열을 수 있다.” 자신과 아들 마가 보다 교회를 더 사랑했다. 자신의 집까지 모임 장소로 열었다.

- 4) 로데 - “나는 교회를 사랑한다. 목소리만 들어도 기뻐할 수 있다.” 로데는 감옥에서 나온 베드로의 목소리를 듣고 기뻐하였다. 우리들은 교회 성도들의 목소리를 듣고 기뻐하는 사랑과 축복이 있어야 한다.
- 5) 교회 - “나는 교회를 사랑한다. 교회를 위해 기도할 수 있다.” 교회는 성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이며 기도하는 성도가 교회를 세우는 성도다.

청소년축제 10월 11일(금) - 안산YFC



안산 YFC를 이끄는 이인식 선교사는 십대 청소년들을 주님의 제자로 훈련시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일에 자신의 삶을 걸었다. 경배와 찬양은 이케브미니스트리(전 디사이플스)와 함께 예배했으며 유소망자매의(CCM사역자, 회담공연예술 단원) 간증과 찬양, 안산 YFC모바일팀의 공연으로 진행 되었다. 젊은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었다.

블레싱춘천 10월 11일(금)



박인관목사(광영교회, 성시화이사장)의 은혜의 말씀과 이수형목사(순복음춘천교회, 성시화부이사장)가 합심기도를 인도하였다. 연합된 교회들이 나라와 도시,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었다.



전도사관학교



월드비전 6Km

글. 김 훈목사
(춘천성시회운동본부 사무총장)

목회자 세미나

47주년 춘천성시선교대회가 열리는 중에 10월 7일부터 9일까지 오전 10시부터 목회자를 대상으로 교회부흥 전략 집중세미나가 강소형교회 훈련센터 대표인 김홍양 목사를 강사로 진행했다.

첫째 날은 사도행전 9:19-31을 통해 복음의 힘과 능력이 가리워진 이 시대에 어떻게 동역자인 성도들과 전도를 해 나가야 할 것인가를 말했다. 전도를 할 때, 전도지만 주지 말고 예수이름을 전해야 하며, 목사와 성도가 전도를 같이 다녀야 실제적인 전도가 이뤄진다고 했다. 바울은 회심하고 곧 이어서 전도를 시작했고, 그 복음을 들은 동역자들을 통해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었다. 목회자의 사역을 돕는 아홉선교회를 통해 협력하고 있는데, 이런 역사를 목회자들이 이뤄야 한다고 했다.

둘째 날은 히브리서 6:4-6을 통해 현대를 살아가는 청중들에게 효과적으로 설교하기 위한 요소들을 전달했



다. 현대인들은 새로운 것을 좋아하는데, 오랜 시간을 함께 해야 하는 목회자와 성도들의 관계에 도움이 될 내용들을 설명했다. 매번 목회자와 환경을 새롭게 바꾼다고 되는 것도 아니기에 목회자의 삶에서 진정성을 보여주면서 영성이 묻어 있는 설교와 찬양, 그리고 목회자의 지속적인 자기 계발을 강조했다. 설교 사역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서 본문이해와 전달기술, 예화는 빨

리 진행시키고, 진리는 또박또박 전달해야 하며, 핵심은 천천히 확고하게 전달할 것과 의성/의태어 사용, 유머의 사용법, 결단 기도에 대해 강조했다.

셋째 날은 디모데후서 3:16-17을 통해 성경읽기의 유익성을 강조하면서 맥체인 성경읽기와 이것을 새벽에 배에 적용한 구체적인 사례를 책자를 통해 설명했다. 성경을 다독 보다는 정독해야 하고, 정독에서 묵상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성경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데는 맥체인 성경읽기가 도움이 된다.

사흘간에 짧은 시간이었지만, 춘천지역 목회자들에게 목회적 기본자세를 돌아보면서 목회적 열정을 다시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다.

글. 차성희 목사
(춘천성발침례교회)

2019충남당진국제성시화대회



지난 10월 2일 오후 2시부터 4일 오전까지 충남 당진시 시곡동 동일교회에서 열린 2019충남당진국제성시화대회가 큰 은혜와 감동 속에 폐막했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가 주최한 이번 대회는 미국과 일본, 체코, 스위스, 영국,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북미와 아시아, 유럽 그리고 한국 광역시도와 시군 성시화운동 지도자 330여 명을 비롯하여 1,0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대회는 지난해 10월 23일 당진동일교회에서 전국 대표자회의(임시총회)를 통해 제3기 리더십으로 대표회장 김상복 목사와 전용태 장로, 상임대표회장에 이수훈 목사와 이창호 장로 등을 세운 후 열려 국내외 해외 성시화운동 지도자들의 연합과 비전을 공유한 뜻깊은 대회였다.

이번 대회는 개회예배와 저녁집회 그리고 국내외 도시성시화운동 사역 나눔과 함께 영역별 특강이 진행됐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김상복 목사(할렐루야교회 원로, 햇빛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명예총장)는 마태복음 5장 14-16절을 본문으로 개회예배에서 말씀을 전했다.

김 목사는 "1972년 김준곤 목사님에 의해 춘천에서 시작된 성시화운동의 작은 불꽃이 온 세계에 점화하게 됐다."며 "성시화운동의 '전 교회가 전 복음을 전 시민에게' 라는 구호가 전 세계적인 구호가 됐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성시화운동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빛을 비추게 하는 사역이다. 그러므로 이번 대회를 통해 한 가지 분명히 갖고 돌아가야 하는데 그것은 영적 정체성이다. 곧 '나는 세상의 빛이다' 는 정체성

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성시화운동은 복음적 사명과 사회적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며 "성시화운동에 참여하는 교회는 반드시 세금을 잘 납부해야 하며 또 하나는 반드시 투표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째날 저녁집회는 한국칼빈주의연구원장 정성구 목사(전 총신대 학장, 전 대신대 총장)는 마태복음 9장 35-38절을 본문으로 "도시로 간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정 목사는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 라고 했다."며 "예수님은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사역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예수님의 구속사역의 마지막 승부처로 수도 예루살렘이었음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새 도시운동 즉 거룩한 도시를 만들자는 것이 성시화운동"이라며 "오늘의 도시는 모두가 세속적이고 권모술수가 난무하고, 유물주의적이고 무신론적이고 인본주의적이며, 세속 정치가 판을 치는 곳이다. 그 한 가운데 교회가 있고 설교자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환경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깨끗한 도시,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도시로 만들자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며 "아마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오래 전에 하나님께서 김준곤 목사님께 주어진 비전일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우리는 성시화운동을 기독교인의 친목단체나, 평신도운동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며 성경공부 수준의 제자화훈련이 아니다."며 "성시화운동이란 영적 전쟁이다."고 말했다.

둘째날 오전은 국내 시군 사역나눔에 이어 진유철 목사(미주성시화운동본부 공동대표회장)의 성시화 비전 메시지를 선포했다. 이어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상임대표회장 이수훈 목사가 세계성시화운동 전략을 발표했다. 이 목사는 복음전도, 가정회복, 저출산 극복, 생명존중, 좋은법 만들기 등을 제시했다.

오후에는 영역별 특강으로 진행됐다. 전용태 장로(전 검사장), 안창호 장로(전 헌법재판관), 이양구 (전 우크라이나 대사), 조영길 변호사, 허문영 박사(평화한국대표) 등이 특강을 통해 건강한 대한민국 건설과 복음적 평화통일을 위한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둘째날 저녁은 야외무대에서 찬양콘서트가 열렸다. 국악가수 나경화, 춘천성시무용단, 기타리스트 장하은 등 출연자마다 관객들에게 은혜와 감동을 선물했다. 마지막 날 오전에는 해외 참가자 중심으로 솔피성지, 면천읍성, 시내산중고등학교 탐방을 했다.

2019충남당진국제성시화대회 참가자들은 대회를 마치면서 2019충남당진국제성시화대회 선언문을 발표하고 "전교회가 전도시에 전복음을 전하여 행복한 시민, 건강한 가정, 깨끗한 도시를 만드는 일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다짐했다.

참가자들은 "우리는 우리가 사는 도시의 전교회들과 연합해 모든 지역, 계층, 직업의 영역에서 영혼 구원을 위한 복음전파에 앞장 설 것"을 다짐했다.

글. 김명철 목사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

춘천 전도사관학교를 시작하면서

올해는 춘천에서 전 교회가 전 복음을 전 시민에게 전하여 행복한 가정, 건강한 교회, 깨끗한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성시화운동이 시작된지 47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972년에 처음 이 운동이 시작될 때는 지역의 교회들과 선교단체 청년들이 연합해서 성회를 갖고,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지 알 수는 없지만 성시화 운동이 집회 위주로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은혜롭고 좋은 일입니다만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여겨 집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지역의 이웃들에게 나누는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춘천에서 전도사관학교를 열게 된 것입니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의 상임대표회장인 이수훈목사님이 당진 동일교회를 크게 부흥시킨 전도 노하우를 배우고, 더 나아가 이 시대의 눈높이에 맞는 전도 전략을 통해 실제적인 전도의 문을 열어가는 훈련입니다. 전도사관학교

는 단순한 전도프로그램이 아니라 실제적인 전도꾼을 양성하여 담임목사님의 지휘하에 목양동역자로 만들어 줍니다. 훈련을 마치면 전도의 문을 열 수 있는 강력한 도구인 SQ 지도사와 상담 심리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교회마다 유능한 전도의 일꾼이 세워지면 교회가 새롭게 부흥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춘천시에 아직 믿지 않은 영혼을 단순한 낚시가 아니라 그물을 쳐서 전도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전도사관학교 일정

- 일시 : 10월 31일(목)~12월 19일(목) /오전반(9:30~12:30), 저녁반(7:00~10:00)
- 회비 : 15만원
- 강사 : 이수훈목사외 다수
- 장소 : 순복음춘천교회



장소: 태국 핫야이(Thailand Hansa)
일정: 2019년 9월 30일[월]-10월 4일[금]

이곳은 태국 방콕에서 육로로는 12시간 항공편으로 1시간 40분 이동하는 남쪽 끝에 위치한 태국의 3번째 도시인 송클라 도에 속한 핫야이로 인구는 40만이다. 특징은 태국에서 무슬림들이 가장 많이 사는 곳이고, 조금만 가면 말레이시아와 국경을 마주 하고 있고, 양 쪽으로 조금만 가면 바다이다. 대학이 많은 교육도시라고 한다.

우리가 방문한 길호만 선교사는 작년 4월에 이곳에 와서 초등학교에서 한국문화를 가르치는 중에 한글을 가르치는 사역을 시작했다. 선교사는 이곳에 온지 1년인데 기적적으로 선교사 비자가 나왔고 3층 집을 매달 40만원에 얻어서 1층을 예배처로 3층을 살림집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번에 우리 모임은 제 3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를 섬기는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는 선교사를 돌보거나 돕는 것이 잘되어 있지 못해서 내가 20여 년

째 하고 있는 땅끝선교회를 통해서 선교사대회라는 이름으로 해마다 국내와 국외를 번갈아 가면서 모이는데 금년은 해외에서 모이게 되어 이곳 태국으로 온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 선교사들은 교단의 후원이나 지원이 없는 중에도 개인의 결단이나 소명하나로 선교지로 나가서 살아남은 사람들이다.

선교사들이 마치 돌보는 부모 없는 고아들과 같다는 마음이 들어서 이일을 시작하였는데 금년이 6회째이고 한국에서 같이 간 몇 사람의 목회자들과 함께 모두 20명이 모였다. 우리는 핫야이에서 한 40~50분 떨어진 송클라에 케스트 하우스에서 지냈는데 이곳은 평신도로 7년째 되는 여운식,배신자 선교사가 섬기고 있었다. 이들은 라오스에서 1년 있다가 이곳으로 왔다. 핫야이에는 한국인 두 가정이 있고, 이곳은 한국 선교사 다섯 유닛이 있다고 한다. 우리는 키르키즈탄, 터키, 중국, 필리핀, 네팔, 태국, 캄보디아에서 영적인 추수를 하고 있는 선교사들의 현황과 보고, 간증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 대학의(k.c대학) 심상길 교수의 특강을 듣는 시간과 야외로 나가 깊은 계곡에서 카누도 타고, 특이한 폭포로 들어가서 물을 맞으며 재미있는 교제의 시간도 가졌다.

내년은 7월 첫 주간에 한국부산의 동서대학에서 그리고 그 다음해는 터키에서 모이기로 하였는데 할 수 있으면 바나바의 고향이요 바울의 1차 전도지였던 구브로 섬으로 갔으면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행13:4-13). 이곳은 지중해에서 세 번째로 큰 섬인데 크기는 우리나라 제주도의 다섯 배이고 해마다 240만여 명의 관광객이 찾는 관광지이기도 하다. 현재는 키프로스공화국(Republic of Cyprus)이며 인구는 12만 정도이고 수도는 니코시아(Nicosia)가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다. 남쪽은 그리스가 북쪽은 터키가 지배하고 있다. "하나님 선교사들을 위로하려는 우리의 마음을 축복 하소서."

글. 조영호 목사
 (춘천그리스도의 교회)





강원도 그리스도인들의 독립운동 2

글. 김동정 장로
(신성교회, 가톨릭관동대 교수)



일제강점기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일제에 대한 저항과 독립에 대한 열망이 더 강하게 불타올랐다. 이 과정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신사참배를 거부하였고 믿음으로 민족의식을 무장하고 독립을 위해 몸부림쳤다. 우리 강원도에서도 옥고를 치르거나 순교한 목자와 성도들이 있었고 외국에서도 민족독립을 위해 몸부림치던 강원도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

강원도 김화성결교회 성도들의 저항사건

강원도에서 신사참배 거부운동이 일어난 사례는 김화성결교회와 몇몇 목자와 성도를 통해 약간 파악할 수 있다. 김화성결교회 사건은 1941년 7월 2일 강원도 김화경찰서에서 근무하던 한 순사가 그 지역 「기독교 신자의 언동에 관한 보고」를 하는 가운데 현재 세계 열강들의 끊임없는 전쟁은 말세가 가까워 오는 것으로 예수그리스도의 나라가 창설되어지는 전조이며 천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숭경존모(崇敬尊慕)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설교하는 기독교인들이 있다고 보고한 것에서 발단되었다.

이에 김화경찰서는 1941년 8월 6일 김화교회의 독실한 신자인 한정우 집사와 박운상 집사를 체포하여 심문하였고 결국 한정우와 박운상은 심문을 받은 후 불경죄로 기소되어 1942년 1월 19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옥고를 치렀다. 김화성결교회는 교인이 20명이 채 못 되고 담임 교역자도 없는 매우 영세한 교회였지만 일제의 강압적인 신사참배에 반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신사참배 불참으로 감옥을 밥 먹듯 드나든 김의용 목사

같은 재단의 춘천성결교회(현 중앙성결교회) 김의용



김의용 목사 내외(중앙성결교회 제공)

목사 또한 신사참배 불참 이유로 옥고와 가택연금을 당하였다. 일제는 신사에 참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938년 5월 3일 김목사를 춘천경찰서에 구속·검거하여 한 달 동안 유치장에 구류시키고 심문한 것을 비롯하여 1940년 8월 1일에도 역시 신사참배 불참을 이유로 9개월 동안이나 옥중에서 취조, 이후 1941년 4월과 5·6월 그리고 1942년 10월, 1943년 3월과 7월에 신사참배 불참을 이유로 징역선고와 석방을 반복하였다.

더욱이 1942년 10월 중앙본부(현 총회본부)로부터 목사직을 제명·박탈당하고 춘천성결교회의 폐지까지 당하였다. 1943년 3월에는 강제 퇴거령을 받아 가족을 데리고 고향 김천으로 갔지만 그곳에서도 미행과 감시

를 당하다가 7월에는 김천경찰서에 검속되어 취조를 받고 1개월 후에 석방되기도 하였다. 취조를 받고 나온 후 다시 춘천에 돌아와 교회를 일으키려고 하였으나 9월에 예배중지령이 내려지고 12월 29일에는 성결교단 해산과 더불어 교회도 강제 해산되었다.

낙향하여 대구에서 광복을 맞이한 김의용 목사는 2년 8개월간의 긴 옥고와 가택연금까지 6년의 인고의 세월을 이겨내었다. 광복되자 대구에서 교회를 개척·설립하다가 1945년 12월 1일에 춘천으로 달려와 일제의 박해로 폐쇄·해산되었던 신자들을 찾아 교회를 재건하였다.

신사참배 반대의 첫 순교자 강종근 목사

강종근 목사(1901~1942)는 일제강점기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혹독한 고문으로 순교자가 된 첫 번째 목회자다.

강목사는 평남 강서군에서 출생했다. 그는 어머니를 따라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의 가족은 한일병탄과 함께 만주 봉천의 유하현으로 이주해 이동교회를 다니면서 최학규 전도사로 부터 신앙적인 영향을 받았다. 최학규의 추천으로 강종근은 배재학당에 입학, 기독교 신앙과 민족의식이 더욱 굳어졌으며 1925년 협성신학교에 입학해 1929년 졸업한다. 재학 중이던 26년 윤희성과 결혼하고 가정을 꾸렸다.



강종근 목사

1933년 경성지방 창동구역에 파송 받아 목회를 시작했고, 1937년 철원지방 연천구역, 1938년 창도교회(김화군 창도면 창도리)에 파송됐고 1939년에 목사안수를 받고 이후 철원제일교회에서 목회했다. 철원제일교회는 강원도 최초의 독립만세 운동 때 박연서 목사 주도로 중심적 역할을 했으며 이후 철원 애국단을 조직, 상해 임시정부와 관계하며 독립운동을 했던 교회다.

일제가 1930년대 후반부터 교회에 대한 지배력 강화와 신사참배 강요를 더 심화하자 강종근 목사는 하나님사랑과 이웃사랑을 강조하며 민족을 향해 손을 펴야한다는 설교 행하기를 멈추지 않았다.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민족도 해방의 때가 온다는 믿음으로 이겨낼 것을 더 강하게 선포했다.

1940년 9월 20일 신사참배 거부 항쟁자 193명이 검거되었고 강종근 목사도 혹독한 고문과 심문을 받았다. 일본은 강 목사를 조용히 서울로 이송하고자 했지만 성도들은 새벽 철원역에서 찬송으로 떠나는 목사를 배웅했다고 전한다. 서대문 형무소에서 수감생활 중 건강이 악화되었고 1942년 6월 3일에 아침 6시 “나는 기뻐…….”라는 말을 아내 윤희성에게 남기고 38세의

나리로 순교했다.

철원출신 박용만 미국에 소년병학교와 대조선국민군단 조직

외국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의 독립운동이 있었는데,



조선국민군단 하와이 시가 행진 모습 (1916, 독립기념관 제공)

1881년 7월 철원에서 출생한 그리스도인 박용만이다. 그는 1905년 미국으로 건너가 1909년 6월 재미한인 13명으로 소년병학교를 설립하여 독립투쟁에 필요한 장교양성과 폭넓은 신지식 및 세계정세 시야를 갖게 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

특히 1910년 4월 헤이스팅스 대학의 독실한 기독교인 존슨 부부를 비롯하여 만주 선교에서 돌아온 로이스 목사 등의 주선으로 본격적인 군사훈련을 실시했다. 이들은 소년병학교 생도들에게 성경도 정규과목에 넣어 가르쳐 주었다. 그러나 운영상의 곤란함 등 다양한 이유로 1915년 무렵 폐교되고 말았다. 박용만은 소년병학교가 폐교되기 전인 하와이에 국민개병을 통한 국민회복을 실현하기 위해 농장을 구입하여 1914년 6월 만주에서 항일투쟁을 전개할 독립군 양성을 위해 대조선국민군단을 창설했다. 미국군대를 모방한 근대적 군사조직이었지만 1916년 농장주의 압력으로 계약을 취소당해 문을 닫게 되었다.

이후 박용만은 1918년 대동단결선언에 참여한 것을 계기로 1919년 3월에는 350명을 규합하여 대조선독립단을 창설하여 대동단결을 통해 독립운동에 집중하고자 하였으나 이러한 박용만의 꿈도 1928년 10월 16일 이구연(이해명)에게 피살되면서 사라지고 말았다.

이외에도 회양교회 권원호 전도사도 역시 서대문형무소에서 1944년 4월 13일에 순교하였고 평신도로 강릉지방 천곡교회 최인규 권사는 창씨개명과 일어 사용뿐 아니라 신사참배도 거부하다가 모진 고문 끝에 대전형무소에서 1942년 12월 16일에 순교하였으며, 횡성출신 탁영재(횡성감리교회) 또한 고향에서의 3·1운동과 철원애국단 활동으로 인하여 일경에 붙잡혀 고초를 겪는 등 강원도내에서도 무수한 그리스도인들이 일제에 항거하다가 순직하거나 고초를 겪었다.

이렇듯 고난과 시련 속의 믿음을 지키며 독립을 위해 몸부림 친 선배들의 거룩하고 고귀한 정신과 믿음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고스란히 마음 속 깊이 간직하며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루터 도시 비텐베르크엔 종교개혁을 알리는 상징적인 두 개의 교회를 만날 수 있다. 하나는 (95개조 논제) 계시로 유명한 성채교회(Schlosskirche)인데, 여기엔 루터와 멜란히톤의 묘가 있어서 관광객 대부분은 이곳을 먼저 찾는다. 그러나 종교개혁의 역사와 전개를 고려하면 성채교회보다는 시청 광장 옆에 있는 비텐베르크 시 교회(Stadtkirche St. Marien in Wittenberg)가 더욱 중요하다. 루터는 이 교회에서만 약 3천 편 정도의 설교를 했고, 종교개혁 사상에 따라 양형성찬, 회중찬송인 코랄이 만들어지고 불려진 개신교찬송의 요람이고, 개신교 최초의 청빙목사인 요하네스 부겐하겐이 목회하던 장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교회가 중요한 이유는 교회당 안에 있는 제단화 때문이다. 일명, '종교개혁제단화' (Reformationsaltar)라고도 불리는 네 폭의 제단화는 신앙고백적 역사의 특수성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담고 있는 내용들이 루터의 교회론을 압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네 폭의 제단화는 각기 십자가 중심적 설교, 성만찬, 세례, 죄의 고백과 용서라는 교회의 표지를 담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가장 큰 중앙 제단화이다. 여기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 제자들과 함께 나누던 '최후의 만찬' 이 그려져 있다. '최후의 만찬' 하면 대부분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것을 떠올릴 것이다. 그런데 여기 있는 루카스 크라나흐(Lucas Cranach der Ältere, 1472-1553)의 작품엔 그와 비교되는 아주 특별한 것들이 화폭에 담겨 있다.



예를 든다면, 다빈치의 그림에 나오는 식탁은 일 자형이지만, 여기 식탁은 원탁이다. 원탁의 상징적 의미는 서로가 평등하며, 소통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점은 곧 루터의 교회론에서 강조되는 '모든 신자의 만인사제직' (Priestertum aller Gläubigen)을 뜻한다. 루터의 후원자이자 가장 친한 친구 중 한 명이었던 크라나흐는 이런 식으로 그림 속에 여러 의미들을 담아 놓았다. 그 중에서도 특이한 것은 12사도들의 식탁자리에 엉뚱한 사람들이 얼굴이 담겨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오른쪽 검은 망토 복장의 수

염이 있는 사람이 바로 루터이고, 그 루터가 식탁의 포도주를 식탁 밖에 있는 한 젊은이에게 넘겨주고 있다. 그 젊은이의 정체는 이 그림을 그린 루카스 크라나흐의 아들(Lucas Cranach der Jüngere, 1515-1586)이다. 이 점은 매우 의미 있게 볼 대목이다.

당시 중세교회에선 성찬 때 회중에게 떡만 나누어주고 잔은 주지 않았다. 그런데 루터의 도시에선 둘 다 나누어주는 양형분찬을 함으로써 종교개혁의 정신을 고취시켰다. 실제로 16세기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상징은 양형성찬에 있었다. 16세

기 개신교 진영에선, 중세 교회의 이중배찬 금지론을 부수고 모든 신자들이 주의 말씀대로 떡과 포도주를 받도록 한 것을 종교개혁의 가장 혁명적인 것으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1528년 독일 개신교령이었던 Braunschweig에서 내린 포고령을 보면, '개신교령에서는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행위를 하도록 권장하는데 특별한 날을 지정한 것이 아니라 '양형 분찬' 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그렇기에 중앙 제단화에서 사도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닌 외부(평신도)로 넘겨주고 있는 모습은 곧 만인사제직이 개신교회 안에서 작동하는 방식을 회화로 설명하는 대목이다.

여기엔 또 한 사람의 주목할 인물이 등장한다. 루터의 바로 왼편에 긴 수염의 인물이다. 그의 이름은 한스 루프트(Hans Lufft), 루터의 신약성서(1522.9월)를 인쇄했던 출판업자이다. 바로 여기에 특별함이 있다. 한스 루프트는 12사도도 아니고, 루터 같은 종교개혁가도 아니고, 그렇다고 거룩하게 '소명(Berufung) 받은 사제' 도 아니다. 그저 동네 인쇄업자일 뿐이다. 그런데 종교개혁신학의 모든 핵심이 담겨 있는 제단화에, 그것도 가장 큰 중앙 패널에 그가 사도급의 위치로 그려져 있다. 이것으로 종교개혁신학이 선언하고 싶은 대목이 바로 루터의 '직업 소명론' 이다. 루터에겐 '직업(Beruf)이 곧 소명(Berufung)이다!

글. 최주훈 목사
(중앙루터교회)





» 추수감사절에 대해

11월 셋째 주가 되면 교회에서는 추수감사절 주일로 지킨다.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각자 결실의 계절에 맺은 열매를 하나씩 가져와 강대상을 장식하고 하나님께 감사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는 이날을 뜻깊게 새기고 자 감사절 행사를 준비한다. 행사로는 찬양제를 열거나, 지역 주민들을 초청해서 음식을 나누기도 하고, 쌀 나누기, 과일 나누기 등 어려운 이웃에게 다가가는 봉사활동을 한다.

그럼 이러한 추수감사절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나? 오늘날 개신교 교회에서는 추수감사절이 교회절기로 들어가 있어서 지키고 있지만, 추수감사절이란 명칭은 성경에 나와 있는 명칭은 아니다. 구약에는 추수감사절이라는 명칭은 아니지만, 가을 추수 후에 감사예배를 드렸던 초막절이 있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명절을 유월절과 칠칠절과 더불어 이스라엘 3대 명절로 오래전부터 지켜왔다. 유럽에서는 3세기에 벌써 추수와 관련된 예배와 축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나 그 날짜가 통일되지는 못했다. 그러다가 종교개혁이후에 성 미하엘 축일 혹은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인 바돌로매를 기리는 날과 함께 추수감사예배를 드렸다. 그러다가 결국엔 1773년 프로이센 국왕령으로 인해 이 날을 미하엘 축일을 기리는 날 9월 29일로 확정했다. 오늘날 독일에서는 10월 첫째 주로 정하고 있지만, 구원역사를 지향하는 교회절기로 보지 않기 때문에 각 교회가 지켜야 할 의무적인 절기는 아니다.

반면에 북아메리카의 추수감사절은 유럽과 다른 전통과 문화를 보인다. 오늘날 미국과 캐나다(일부 주는 제외)는 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는데, 각각 기원이 다르게 이야기된다.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청교도와 관련이 있다. 유럽의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이주해 와서 큰 수확을 거두자, 이에 대한 감사에서 유래한 것으로 본다. 청교도들은 자신들에게 농사를 가르쳐주어 굶어 죽지 않도록 배려한 인디언들을 초대하여 추수한 곡식, 과일, 야생 칠면조를 잡아 이들과 나누었다. 반면 캐나다의 추수감사절은 탐험가 마틴 프로비서가 잉글랜드에서부터 긴 여행을 하는 동안 폭풍과 병산의 위협으로 생존해 배편 섬에서 이에 대한 감사예배를 드린 것에서 기원한다. 또한 캐나다 추수감사절은 17세기 사무엘 드 샹플랭이 뉴프랑스에 온 프랑스 개척민들의 성공적인

수확을 경축한 행사라고도 추정한다. 역사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역과 시대는 달라도 추수감사절의 핵심은 감사와 나눔이다.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음으로는 이웃과 그 감사한 마음을 나누는 실천이 들어간다. 가을의 풍성한 결실은 사람의 힘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자연과 창조주의 은혜인 것이다. 추수감사절이 교회의 행사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우리의 이웃으로 실천하는 다양한 문화가 오늘의 시대에 맞게 더욱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 교회역사에 나타난 성탄절

성탄절은 부활절과 함께 기독교 2대 명절 중의 하나로 오늘날 12월 25일에 성탄절을 기념한다. 한국사회에서 성탄절은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도 하나의 정착된 문화로 자리매김 된지 오래 되었다. 성탄절이 되기 4주 전부터는 공공장소마다 성탄트리 높이가 설치되고, 아기 예수 탄생을 기다리며 축제의 문화를 만들고 있다.

그럼 언제부터 이러한 문화가 시작되었을까? 교회사적으로 성탄절에 대한 초기 언급은 2세기 후반에서 3세기 초반 알렉산드리아와 로마의 기독교 문헌에서 나타난다. 이는 초기 기독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문화가 오늘날처럼 기독교에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지 않았다는 증거이다. 초기 기독교 문화는 성탄절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카타콤베의 벽화들이 이를 설명하는데, 그리스도 탄생과 관련된 그림은 3세기 후반에야 나타난다. 4세기 이후, 기독교는 이교문화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던 로마 제국 중심에 서게 되었다. 그리하여 문화적인 면에서 기독교 전통과 로마의 이교 전통은 서로 간의 충돌과 배척, 융합과 토착화라는 과정을 겪는다. 성탄절 문화는 이 두 문화에 대한 관계를 보여준다. 먼저, 로마제국에서 12월 25일은 "정복되지 않은 태양" (Sol Invictus)의 탄생일로 로마의 축제일이었다. 반면 354년으로 추정되는 필로칼루스의 '연대기'에는 12월 25일을 그리스도 탄생일로 지켰던 교회문화를 보여준다. 이러한 로마의 축제일과 교회의 성탄기념일의 일치하는 '기독교가 로마문화를 수용한 것인지', 혹은 '이교축제로부터 기독교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였는지' 여전히 학자들의 토론 가운데 있다. 분명한 것은 이교적 환경과 토양에서 성서의 성탄문화가 뿌리를 내려 자리를 잡았다는 점이다. 이러한 뿌리내림은 4세기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하여 베들레헴의 탄생교회가 건립된 점으로 확인된다.

교회력에 따른 성탄문화는 하루만 기념하는 절기가 아니었다. 다음해 1월 6일 주현절을 맞이하기 전까지 이어지는 기간이었다. 이러한 성탄기간은 부활절을 모방

추수감사, 성탄절

한 구조로 발전했던 것인데, 부활절 이전 사순절을 지킨 것처럼, 성탄절 이전에 4주간의 대강절이 이어진 것이었다.

고대교회 성탄문화가 정착할 당시 교회의 성탄설교는 소망과 용기를 주는 메시지였다. 북아프리카 밀레브의 옵타투스(Optatus) 이름으로 내려온 성탄설교는 헤롯의 베들레헴 유아학살과 관련해서 고난과 핍박받는 자들에 대한 소망과 용기를 주고 있었다.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세례를 준 밀라노의 암브로시우스(Ambrosius)는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균형, 그리고 삼위일체를 강조하는 성탄찬송(veni redemptor gentium)을 지었는데, 당시 아리우스의 왜곡된 신앙으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었다. 찬송시의 내용일부는 다음과 같다.

1. 오소서 만인의 구세주여, 동정녀 탄생은 나타내사 모든 세상을 놀라게 하소서 이러한 탄생은 하나님께 합당하도다.
2. 사람의 씨앗이 아닌 신비한 숨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었도다. 육신의 열매가 나타났도다.
3. 그분이 방에서 나왔도다. 순결의 왕실에서 두 본성의 영웅 서둘러 길을 열명하도다.
4. 그의 달림은 아버지에게서 나와 아버지에게 돌아가 네 음부에까지 내려가 다시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셨네.
5. 당신의 구유는 환하고 선명하네 새로운 빛과 밤은 서로 영겨있네 밤은 소멸하지 않고 끊임없는 믿음으로 빛나도다.

고대교회의 성탄문화는 오늘날과 같은 휘황찬란한 트리장식문화와 선물문화는 아니었다. 고대교회의 성탄문화는 고난 받는 이들에게 소망을 주고, 성도를 이단으로부터 보호하며,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분을 찬양하며, 올바른 믿음을 선포하는 문화였다.

글. 황훈식 박사
(명지전문대학 교목,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 고대교회사
및 교부학과 Ph.D.)



아토피(atopy)는 '이상한' 혹은 '부적절한' 이란 의미로서 음식물 혹은 흡입성 물질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 유전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아토피 피부염이란 피부에 발생하는 만성 알레르기 염증성 질환이다.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흔한 음식에는 우유, 달걀, 콩, 생선 등이 있고 집먼지 진드기, 꽃가루, 혹은 동물 털 등의 대기 중 물질들도 아토피 피부염을 악화시킨다. 음식에 의한 아토피 피부염 악화는 만 3세 이후에는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음식 섭취와 아토피 피부염의 악화를 잘 관찰하여 아이들 영양에 불균형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특별히 아토피 피부염을 악화시키는 음식일 지라도 필요한 음식은 경과를 관찰하며 먹일 필요가 있다.

환경적 유발인자나 악화인자(집먼지 진드기, 꽃가루, 동물 털 등)를 제거하기 위해서 집먼지 진드기 전용침구류를 사용하거나 헤파필터가 있는 청소기를 사용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고온 다습한 조건이 집먼지 진드기가 살기 좋은 환경이 되므로 실내온도를 18-21℃, 습도를 40-60% 정도(에어컨을 틀었을 때와 비슷)로 유지해서 집먼지 진드기의 개체수를 줄이면 좋다. 물론 집먼지 진드기가 살기 좋은 카펫이나 인형, 커튼, 털이불 등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환경적 유발인자와 악화인자를 제거한다 해도 아토피 피부염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 물론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애완동물도 키우면 안 된다. 강아지 목욕을 많이 시켜도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아토피 피부염이 호전되지 않기 때문이다.

아토피 피부염에서 발생하는 피부의 염증성 변화는 피부 장벽을 파괴해서 피지층이 얇아지고 피부의 수분도 소실되어 피부가 건조해진다. 따라서 피부는 외부 자극(진드기, 세균, 곰팡이, 비누, 세제, 화학약품, 모직, 나일론, 높거나 낮은 기온이나 습도)에 민감해지고, 쉽게 가려움증과 피부염을 일으킨다. 그러므로 아토피 피부염 환자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부를 보호하는 보습이다.

피부의 청결과 보습을 위해서 목욕을 시킬 때는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이 있다. 매일 1회(진물이 흐르거나 땀이 많은 계절은 2-3회), 35℃ 이하의 미지근한 물에서 욕조목욕(물속에 푹 담그고 놀도록 한다)을 10-20분 시행해야 한다. 물이 너무 따뜻하거나 목욕시간이 길어지면 피부를 덮고 있는 피지를 제거하기 때문에 좋지 않고, 너무 짧은 목욕시간은 물이 피부에 스며들 시간이 없다. 비누는 약산성 보습비누를 사용해야 하고 때를 미는 것은 금물이다. 목욕 후 부드러운 수건으로 두드러듯 물기를 제거하고 3분 이내에 보습제를 온 몸에 발라줘야 한다. 보습제는 병변 뿐 만 아니라 몸 전체에 바르는 것이 중요하다.

가려워서 피부를 긁게 되면 피부장벽이 망가지고, 이로 인해 피부염이 악화되면 가려움증이 더욱 심해져서 악순환을 일으키는 것이 아토피 피부염이다. 따라서 아토피 피부염은 심하지 않을 때 빨리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도 중요하다.

아토피 피부염 관리에 대하여

지금까지 언급한 것들은 아토피 피부염 환자의 증상 악화나 재발 방지를 위한 이차적 예방 및 생활 관리 방법이다. 그러나 이런 방법을 어려서 부터 꾸준히 사용하면 아토피 피부염 발생마저도 예방 할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다. 그러므로 아토피 피부염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아토피 피부염 발생 예방을 위해 오늘 소개한 방법들을 꼭 사용하기를 권한다.

최근 강원대학교병원에 강원도 아토피·천식교육정보센터가 생겼다. www.gwallergy.or.kr 에 접속하면 아토피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특별히 개별적인 목욕 교육 등도 시행한다 하니 반가운 소식이다.



글. 김지연
(한국가족보건협회 대표)



기관 · 교계 소식



한국CBSI공동체 성경공부 10주년 감사예배 및 동아시아 태평양 CBSI 대표자 대회



지난 10월 9일부터 12일까지 춘천 세종호텔에서 한국 CBSI 공동체 성경공부 (대표 노예복목사/춘천 한울섬김교회) 10주년 감사예배와 동아시아 태평양 대표자회가 개최되었다. 감사예배에는 전국에서 CBSI 관계자 280여 명이 모여 10주년을 축하했고, 몽골에서부터 호주까지 18개 나라 대표 150 명이 주강사 공동체 성경공부 (Community Bible Study), Kimm Carr 총재와 다수의 강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 한 하나님, 한 백성, 한 사명'이라는 주제로 3박4일 동안 대회를 가졌다. CBSI 공동체 성경공부는 1975년 미국에서 시작하여 현재 120개 나라에서 80개 이상의 언어로 매주 70만

명이 함께 하는 세계적인 성경공부 단체다. (CBSI 공동체 성경공부에 관심 있는 교회나 단체는 한국 본부 (033)261-0695로 문의하면 된다.)

- CBSI 춘천 동아리
- 시간 매주 수요일 12:00-2:00
- 장소: 갤러리 오르
- 대상: 공동체 성경공부에 관심이 모든 분
- 문의: 010-8798-9279 (유인애)

강원CBS 신사옥 완공 선교지평을 새롭게 연다



강원도 선교의 중심이 될 강원CBS 신사옥점 선교 센터가 완공됐다.

강원CBS(본부장: 하근찬)는 11월 12일 오후 2시 춘천시 서면 신사옥에서 신사옥 준공 감사예배를 드리고 역사적인 서면시대를 활짝 연다. 이날 감사예배에는 최문순 도지사과 이재수 춘천

시장 등 각급 기관장, CBS 한용길 사장과 건축위원장인 권오서 감독 등 도내 목회자와 성도, 각계인사 300여명이 참석해 강원교계의 오랜 숙원이자 지역 사회의 바람이던 신사옥 완공을 축하한다.

신사옥은 지난 3월 11일 착공 감사예배를 드린 후 8개월 여 만에 결실을 맺게 됐으며 이로써 강원 CBS는 1995년 운교동 터에 개국한 이래 24년 만에 임대건물에서 벗어나게 됐다.

춘천시 서면 금산리 1019번지 일원 도시첨단 문화산업단지 안에 들어선 신사옥은 3028㎡(약 9백 여평)에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돼 강원지역 기독교 문화의 중심점이 될 선교센터와 함께 지어졌다.

강원CBS는 신사옥 완공을 계기로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새로운 매체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강원지역 선교방송으로서의 사명과 지역 언론의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게 될 것이다.

1954년 한국 최초의 민영방송으로 출발한 CBS는 복음의 소리로써 당시 전쟁의 폐허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던 시민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전해줬다. 그로부터 41년 뒤인 1995년 CBS 지역국으로서 6 번째로 당시 춘천시 운교동에 '춘천 기독교 방송

국' 이 탄생을 알렸고 지난 24년간 강원지역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왔다. 특히 정치적으로 어두웠던 1970년대와 80년대에는 공정한 뉴스와 예리한 분석으로 민주주의에 목말라하던 국민에게 한줄기 물줄기로 자리했고 이후로도 '곧은 소리, 민족의 양심' 이라는 문구는 오늘까지도 CBS 직원들 사이에서 자랑스런 전통으로 이어지고 있다.

강원CBS소년소녀합창단 대만 타이페이 찬양선교



강원CBS소년소녀합창단은 10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대만 타이페이에 찬양선교를 다녀왔다. 캐나다 Mackay(마제)선교사를 기념하는 마제기념병원 중앙로비에서 난타, 워십, 찬양공연을 하면서 수많은 환자들과 병원가족들에게 복음과 찬양을 전하였다.

또한 일반초등학교인 따자초등학교를 방문하여 전교생 350여명이 모인 강당에서 찬양공연을 하면서 전도선물을 전했다.

그리고 이번 대만찬양선교에 직접적으로 협력해 주신 타이페이순복음교회(장한업선교사)에서 수요집회 찬양공연을 하였는데 대만현지인들 100여분이 뜨겁게 환영해 주셨다.

특히 대만찬양선교공연에는 대만Good TV에서 함께 동반 촬영하였고 17일 현지 뉴스에 방영되었다.

JDM



JDM은 "예수님으로 충분하다" 주제로 10월 7일부터 10일까지 필리핀 윤종대선교사(필리핀 앙헬레스)를 모시고 사경회를 개최했다. 200여명의 대학지체들과 말씀으로 은혜를 누리며 예수의 제자로 살기를 결단하는 시간이었다.

"예수님만을 붙잡고 예수의 제자로 살며 열방을 제자삼는 삶을 살아가자"

예수전도단과 지역교회가 함께 하는 말씀사경회



예수전도단 춘천지부는 9월 3일(화)부터 4일(수)까지 "하나님과 친밀한 삶"의 주제로 말씀사경회를 하였다. 강사는 천태석 목사(예수전도단 포항지부 전 대표간사)였으며 장소는 거성교회(이성훈 목사 시무)에서 130여명이 참석하였다.

춘천YMCA 창립70주년 기념식



1949년 창립한 춘천YMCA는 5개국 20여개 YMCA 대표자들과 춘천 주요 기관 및 춘천YMCA 회원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70주년 기념식을 진행하였다.

70년의 시간을 지나 100년을 내다보며 평화의 일꾼(Peace Maker) 됨을 소명으로 다짐하고 "생명의 물결, 평화의 바람, 나눔의 공동체"를 가꾸기 위한 7대 비전을 선언 하였다.

춘천YMCA, 후원의 밤 행사 성황리에 개최



춘천YMCA(이사장 허대영)는 10월 17일(목), 춘천YMCA 동면센터에서 아동청소년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후원의 밤을 개최하였다.

특히 춘천YMCA 후원의 밤 행사는 지역 내 아동청소년의 발전에 관심 있는 YMCA 회원 및 시민 1,000여명이 참여해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춘천YMCA는 3곳의 지역아동센터(푸름이, 만천, 장학)와 5곳의 가출청소년쉼터(일시 고정형, 이동형, 단기남자, 단기여자, 여자중장기)의 운영을 통하여 지역사회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감리교동부연회 성회



기독교대한감리회 동부연회 춘천서지방 42개 교회가 연합하여 10월 6일부터 9일까지 새벽 5:00, 저녁 7:00, 오전10:00(목회자특강) 춘천중앙감리교회에서 비전교회 전도후원을 위한 연합부흥성회가 있었다.

강사는 일산광림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박동찬목사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자(딤후6:11)"의 주제로 진행 되었다.

도서편의를 넘어, 문화·교육의 장을 열어가는 춘천동부교회



춘천명동시민들을 위한 작은도서관인 '꿈나리 도서관' 이 지역을 위한 여러 문화행사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시민들 사이에서 좋은 소문을 내고 있다.

춘천동부교회 산하 법인인 춘천동부디아코니아(이하 법인)의 기관 중 하나인 꿈나리도서관은 춘천시(춘천시립도서관)와 춘천동부교회가 함께 출자하여 2015년 개관한 동네 작은도서관으로 춘천명동지역 시민들의 독서문화생활 제공을 담당하고 있다.

회원 400명 이상이 등록해 있으며, 도서 총 4000여권을 보유하고 있는 꿈나리도서관은 2019년 현재, 영유아를 위한 '오감발달 교육', 취학아동을 위한 '독서교실, 코딩교실', 성인을 위한 '독서토론 북클럽, 플루트 취미교실' 등을 개설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독서문화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특별히 꿈나리도서관은 여러 언어로 된 도서(미국, 중국, 일본, 독일, 네팔 등)를 보유하여 춘천시로부터 다문화권의 이용편의를 고려한 '다문화도서관'으로 등록되어 있기도 하다.

꿈나리도서관 대표이며 춘천동부교회 위임복사인 김한호 목사는 "춘천시와의 민관협력을 통해 종교기관으로는 1호 도서관을 설립하게 되어 기쁘다"며 "성경에 따르면 지혜는 책에서 온다. 이곳이 춘천시민 특히, 명동지역민들이 마음의 양식을 마음껏 채우는 배움의 장이 되길 바라며, 다문화가족의 어린이들이 지혜를 활짝 꽃피우고, 외국인 유학생들의 안식처가 되기를 바란다"고 인터뷰 가운데 밝혔다.

순복음춘천교회, 육군 2군단 연합 찬양축제 개최



이수형 목사 <춤추며 찬양합시다> 설교 2군단 9개 군인교회 참가

한국교회의 다음세대를 위한 청년전도를 실천하는 사역이 군선교이다. 사랑과 나눔으로 군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순복음춘천교회와 2군단이 2016년부터 "2군단 연합 찬양축제"를 개최하여 올해 4회째가 되었다. 2019 2군단 연합 찬양축제는 9월 29일(주일) 오후 3시 순복음춘천교회 본당에서 진행되었으며, 700여명의 장병들과 성도들이 찬양을 통하여 하나가 되었다.

이번 2군단 연합 찬양축제는 군단 내 사단 및 여단의 9개 군인교회가 참여하였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군단 내 모든 부대의 평안을 소망하고 교회별 연합을 강화하여 군선교의 사명을 이루고자 준비하였다.

2군단 한빛교회 찬양단의 은혜로운 찬양으로 시작된 개회예배는 이한익 목사(2포병여단 불기독교회)의 인도, 심홍수 목사(2군단 한빛교회)의 기도, 이수형 목사(순복음춘천교회,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강원지회 이사장)의 설교로 진행되었다. 이목사는 사무엘하 6장 12~15절 중심으로 '춤추며 찬양합시다' 제목의 말씀을 전하였다. 찬양축

제는 9개 군인교회가 참여하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었다.

춘천북부노인복지관, 2019 세대공감 나눔릴레이 캠페인 성료



3,000여명의 사랑 나눔 실천으로 5,000여만원 모금 사랑나눔 강원지회, 강원일보, 춘천MBC가 주최하고 춘천북부노인복지관, 춘천시어린이집연합회가 주관한 위기조손 가정 돕기 '2019 세대공감 행복나눔 나눔릴레이' 캠페인은 8월 26일 신사우동을 시작으로 한 달간 춘천 관내 25개 읍·면·동을 순회하며 진행되었으며, 9월 25일 춘천 동면모금 행사를 끝으로 마무리 되었다.

캠페인을 주관한 춘천북부노인복지관은 지역사회를 위해 다양한 행사로 '사랑' 과 '섬김' 을 실천하고 있는 순복음춘천교회(담임 이수형 목사)가 사단법인 사랑나눔 강원지회로 춘천시에서 5년간 운영 위탁을 받아 2017년 11월 27일 개관한 단체이다.

캠페인 폐막식은 춘천시 동면행정복지센터에서 개최되었으며, 하늘어린이집 원아들의 합창공연으로 막을 올렸다. 행사취지 안내 및 개회선언, 국민의례 및 내빈소개, 행복사진공모전 시상식, 박진오 강원일보 사장의 개회사, 김동섭 춘천MBC 대표이사 사장, 이수형 사랑나눔 강원지회 대표의 환영사, 이원규 춘천시시장, 김진태 국회의원의 축사, 동면주민 모금식 등 순으로 진행되었다.

환영사에서 이수형 목사(사랑나눔 강원지회 대표)는 "아프리카 코사(Xhosa)어로 우분투(ubuntu)는 '우리가 있기에 내가 있다' 라는 뜻으로 내가 잘 되는 길이 내가 잘 되는 길이며, 너와 함께 하는 삶이 좋은 삶이다. 우리는 부모, 형제, 친척, 이웃 등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사랑을 나누어야 한다. 지난 30일 동안 아낌없는 사랑과 성원을 주신 춘천시민들께 감사를 드린다" 고 말했다.

아바 몸찬양팀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아바가 탄생된 때는 2007년 12월 성탄절 전이다. 여전도회 별로 장기자랑을 기점으로 "아바" 라는 무용단이 생겼다.

"나는 예수가 좋아요" 로 데뷔를 하였고 그때를 기점으로 워십 댄스로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몇 분의 뜻이 합쳐져 만들어진 워십팀이다. 아바는 헬라이로 "바라다, 소망하다, 기도하다" 라는 뜻이다. 이름은 김창환 담임목사가 지어주었으며 교회절기 때마다 성탄절, 추수감사절, 부활절, 교회입당예배 때, 남전도회 연합예배, 102보충대, 타교

회, 효잔치, 국제성시대회 등 부르는 곳엔 언제나 순종하며 달려가 춤으로 영광 돌리는 자비량 무용단이다. 2010년도부터는 교파를 초월한 워십팀으로 연합하여 헌신하고 있다.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임하는 아바 무용팀은 항상 기도하며 준비하며 이 사역이 계속 이어지기를 소망하고 있다. 또한 아바팀은 김창환 담임목사와 김귀선 선생(아바팀, 성서무용팀 지도)의 헌신이 있었기에 이 모든 일이 가능하였다. 또한 김귀선 선생이 지도하는 춘천성서무용단은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산하 단체로 2010년 7월 30일에 결성 되었으며, 초교파로 20여명의 단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온몸으로, 아름다운 춤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일을 주님 주신 귀한 사명으로 알고 마음 다해 사역하고 있다. 예수님을 몸으로 찬양하고픈 여성이라면 언제라도 환영한다. 춘천성시선교대회나 부흥집회 등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통교회에서 초청하면 어디든 달려가서 섬기고 있다.

춘천60기 두란노아버지학교



두란노아버지학교 제7790차 춘천60기가 소양제 일성결교회에서 11월 2일부터 11월 30일 매주 토요일에 개설된다. 진행자는 최정용목사(시온교회 담임)이며 개설교회 개설팀장은 이원호장로가 맡았다. 아버지학교는 무너져가는 가정을 세우고 아버지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번에도 40여명의 춘천지부 스태프들이 봉사하며, 지난 10월 1일부터 매주 화요일 기도모임으로 함께 하고 있다. (문의: 염노섭 형제 010-3902-5883 / 등록비 12만원)

여의도순복음춘천교회 창립 10주년 전도축복성회 및 임직 감사예배



여의도순복음춘천교회는 10월 6일 주일 오후 4시에 창립 10주년 전도축복성회 및 임직감사예배를 드렸다.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강원지방회 주관으로 열린 예배는 이영훈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 당회장,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대표총회장)가 '부흥하는 교회' (행 2:42-47)를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여의도순복음춘천교회는 이날 장로5명, 안수집사4명, 권사4명, 서리집사15명이 각각 임명되었다. 여의도순복음춘천교회는 교회창립 10주년을 결산하고, 강원 춘천의 성시화의 의미를 되새기며, 또 다른 10년을 향한 강원 춘천 복음화의 비전을 다짐하고 마련한 출발의 장이었다.

춘천CCC 창립 50주년 감사예배



춘천CCC(대표간사:안장렬)는 10월 26일 CCC아카데미센터에서 '춘천CCC 창립 50주년 감사예배' 를 드렸다. 1969년에 처음 개척하신 홍정길 목사(남서울은혜교회 원로목사), 윤수길 초대 대표간사(전 태국선교사), 성시화 운동의 불씨가 됐던 조남진 전 강원일보 사장(순복음춘천교회 장로) 등 세대를 아우르는 200여 명의 선후배들이 하나 되어 하나님께서 지난 50년간 춘천CCC를 사용하신 것을 감사하고 새로운 50년에는 캠퍼스·민족·세계복음화를 위해 더 힘차게 달려갈 것을 다짐했다.

온누리 교회 양동이 축제



10월5일 토요일, '양동이 축제' 를 만들어가는 지체들이 반가운 얼굴로 맞이했다. '양동이 축제' 는 '양(육자) 동(반자)이 축제' 를 의미한다. 일대일 제자양육 성경공부(이하 양육)는 한 그리스도인이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도록 돕는 일이다. 성경공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나누고 예수그리스도 안에서 지체가 되어 사랑하는 것이다. 온누리교회 양육 프로그램은 교회설립과 함께 새벽, 오전, 저녁반으로 나뉘어 김창환 담임목사가 일대 다수의 성도를 대상으로 시작했다. 현재 200여명의 양육자가 교회와 가정, 다양한 장소에서 동반자 교육에 힘쓰고 있다. 양동이 축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식탁교체처럼 동반자를 격려하고 양육자를 위로하는 나눔의 자리다.

10년 전부터 양육프로그램은 평신도 사역으로 전환되면서 서울 온누리교회가 전문강사를 파견해 양육자교육을 도왔다. 거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누려는 마음으로 3년 전부터 춘천관내 타 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동반자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김창환 담임목사는 "성숙한 크리스천의 마음으로 목사의 힘을 덜어준 양육자들에게 감사드린다." 며 "성도들을 타 교회에 보내 양육시키는 목회자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유한 마음으로 신앙의 성장을 갈망하는 것이다. 세를 키우고 규모를 키우는 것이 성장이 아니다." 라고 했다. "한 영혼을 위한 양육자들의 헌신과 인내, 사랑을 축복하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를 바란다." 고 덧붙였다.

춘천 94차 주빌리 통일 구국기도회



춘천 94차 주빌리 통일 구국기도회가 2019년 10월 14일(월) 저녁7:00에 주향교회에서 있었다. 사회는 홍요셉 목사(에사랴교회), 찬양은 주빌리 연합찬양팀(인도-이상철목사), 대표기도는 조정일 장로(광장감리교회, 홀리클럽회장), 헌금기도는 최상도목사(사암교회), 축도는 신성균 목사(열린순복음교회)였으며 헌금찬양은 북한사역목회자협의회 회원이 했다. 말씀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막2:22)의 제목으로 김영식 목사(포타미션, 북한사역목회자협의회)가 선포했으며 이병철 목사(주향교회)가 기도를 인도했다.

행복한우리교회



춘천교회(기성)가 효자동에 터 잡고 지역 복음화를 위해 애써온 지 40여년, 주님 주신 새로운 비전을 붙잡고 예배당을 새롭게 건축하며 이름을 “행복한우리교회(담임: 강문규 목사)” 로 바꾸고 사농동시대를 시작했다. “사람을 아끼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란 다짐으로 작지만 힘찬 시작을 했다. 지역사회를 잘 섬기며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러한 초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를 요청했다.

안디옥교회 바자회



9월 20일(금) 오전 10시~오후 6시, 21일(토) 오전 10시~오후 4시 안디옥 교회마당, 현관, 식당에서 교회 주최, 여선연 주관으로 열렸다. 주목적은 VIP를 초청해 푸짐하게 사주고 섬기면서, 성도들도 사며 나누는 것이다.

순복음춘천교회, 제12회 춘천시민 초청 탁구대회 개최



사랑과 섬김을 통한 지역화합의 축제의 한마당, 12년 동안 2,300여명 선수 참가
제12회 순복음춘천교회배 춘천시민 초청 탁구대회가 10월 18일(금)~19일(토)까지 순복음춘천교회 교육관 3층에서 개최하였다. 올해 춘천시내 탁구 동호회 22개팀 약 200여명의 선수들이 참가하였으며, 대회 첫날 60세 이상 실버부 단식 예선 및 결승, 둘째날은 60세 이하부 단식 및 단체전 혼,복식 경기가 있었으며, 각 부 1, 2, 3등에게 상장과 부상이 전달됐다. 개최식은 정종승 목사의 사회로 내빈소개, 대회소개, 후원소개, 이수형 목사의 대회사와 개최선언, 실버 남자, 여자 단식 시상식과 경품추첨이 있었다. 내빈으로는 윤길중 전 국가대표 감독, 이수형 순복음춘천교회 담임목사, 와이신협 남준섭 이사장 등 기관장들이 참석하였다. 이수형 목사는 대회사에서 “지역과 춘천시민을

섬기기 위하여 시작한 대회가 어느덧 12회째를 맞이하게 되었다. 대회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지역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본 대회 참가선수들이 아름다운 추억을 만드는 축제의 한마당이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대회장 외부에서는 순복음춘천교회 교구 전도대가 따뜻한 차와 간식(오명,부침개 등)을 제공하면서 전도의 장을 마련하였으며, 총여선교회에서는 맛있는 점심식사로 참석한 선수들을 섬겼다.

춘천드림교회



춘천중앙성결교회가 80주년을 맞이하여 2014년 4월에 분립 개척하여 세운 춘천드림교회는 개척 5주년만에 새성전을 건축하고 지난 9월 22일에 입당 예배를 드렸다. 춘천드림교회는 ‘하나님의 드림(drem)이 있는 교회, 하나님을 향한 드림(offering)이 있는 교회’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담임 목사 백승환 목사는 서울신학대학과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부인 길선희 목사(청소년선교단체 예스컴 대표간사)와 함께 다음세대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있다.

새롭게 세워진 성전은 총 3층 건물로 되어있다. 1층은 지역 주민들과 공유하며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카페와 세미나룸으로 되어 있고, 2층은 예배당으로, 3층은 어린이에 예배하고 마음껏 놀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되었다.

춘천드림교회는 성경적인 건강한 교회를 지향하며,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이웃과 다음세대에 흘려보내고자 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



교회 사무기기 전문업체

컬러복사기 판매 및 임대 전문



디지털칼라복합기, 인쇄기, 레이저프린터, 팩시밀리, 각종 전산소모품

미래 아이엔티 033-253-3211
대표 권오선(권사) 010-5367-3210

주영 CAR 용품점

360°어라운드뷰시스템, 네비, 블랙박스, 선팅, 어린이안전장치, 자동문, 언더코팅

**자동차의 모든것
주영자동차용품에서 해결하세요!**



강원도 춘천시 보안길 140 (동광오거리)
033-253-9106



남/여 신학생 · 편입생
<목사 · 전도사 수시모집>

>모집과정

| 과정 | 학제 | 지원자격 |
|-----|------------|--|
| 신학부 | (주/야간) 8학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례를 받은 자 ●성명이나 연령에 상관없이 사명이 뚜렷한 자 ●본원이 인정하는 다신학 졸업 중퇴한 자는 해당 학기에 편입이 가능 |
| 연구원 | (주/야간) 4학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대학이상 졸업자는 본 과정 3학년에 편입됨 ●신학부에서 각 과정을 모두 이수한 자 |

>소개

본 총회신학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인준신학으로서 최고의 학업시설과 최고의 교수진을 자랑하는 청교도 개혁주의 보수신학입니다. 본 교단은 여목제도가 있습니다.

>특전

빙학없이 2년 8학기 수업으로 조기수료가 가능한 여목제도가 잘 활성화 되어 있음. 획기적인 장학제도로 인하여 학비가 저렴함. (통신 과정 이수 가능)
본 과정은 서울 본원과 각 지역 캠퍼스와 동일함

>입학시 구비서류

입학원서, 사진, 신분증 사본
편입자는 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제출

수료 후 본교단에서 목사 고시 본 후 안수를 받을 수 있음.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강원신학 춘천캠퍼스 수시모집
강원도 춘천시 공지로 432-1(근북동 710-17) 033)243-5354

알려드립니다

알림 등록 문의 : 033)256-1260

춘천올리클럽 (올리클럽 정기기도회)

일시: 매 박수달 셋째 주 화요일 오전 6:30
장소: 지도 복사님 또는 임원교회 순회 시행
회비: 현금으로 진행
http://cafe.daum.net/ccholly
(춘천올리클럽)

춘천성시합창단 단원 수시모집

정기연습: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장소: 사랑강리교회
문의: 010-2529-6193(이기영 단무장)

춘천성시무용단 단원수시모집

정기연습: 일주일에 두번 오전반, 저녁반
장소: 무안길 6번길 18
문의: 010-3180-5330(지도 김귀선)

춘천올리테오 사모합창단 모집

대상: 목회자 사모, 연령제한 없음
문의: 010-6378-2261(지혜사)

교회음악 (지휘)스터디 모임

일시: 매 금요일 오전 10-12시

장소: 효자동 주민센터(부안초 근처)
시몬피아노 교습소

철문산악회 (기독교아리)회원 모집

일시: 매주 토요일 100대 명산 및 춘천분지
중주 산행
문의: 010-8798-8732(정학수)
http://cafe.daum.net/ccjmm

교역자 축구선교회 모집 포이먼

일시: 매주 월요일 오전 8시
장소: 공지천 전디구장
문의: 010-5372-6200(지용찬 목사)

목회자 축구 회원 모집

일시: 월-도요일 매일 오전 6시
장소: 공지천 축구장
문의: 010-5596-3702(홍우 최재영 목사)

한마을 탁구회

일시: 매일 아침 7시30분
장소: 다들거리(후명1단지 시장 입구)
회비: 월 4만원
문의: 010-4306-3818

합기도 선교회원 모집

대상: 복회자 및 자녀와 성도
장소: 합기도선도관(백골관 앞)
문의: 010-3585-3620(이영규 목사)

행복재가 장기요양기관

방문요양, 목욕(춘천지역기관설치 제1호)
65세 이상 치매, 중풍, 장애 등 요양보호사
돌봄이 필요한 분
문의: 010-7757-4972

춘천일일선교회합창단 단원모집

대상: 찬양선교의 뜻이 있는 분
일시: 매주 화 저녁6:30
문의: 010-7390-0448 / 010-5685-5612

춘천주빌리통일구국기도회

일시: 매월 둘째주 월요일 저녁7:15
장소: 주왕교회
문의: 010-6254-3162

춘천통일관정기도회

일시: 매월 넷째 주 월요일 저녁8시
장소: 석사교 하천무대
문의: 010-8377-5373

예수전도단 회오묘일

일시: 매주 화요일 저녁7시
장소: 공간나눔(식주로 128 지하1층)
문의: 010-5541-8952

춘천노헤미아국가기도회

일시: 매월 마지막 화요일, 오후 8시
장소: 베드로선교센터
문의: 010-8901-1149

데이비드차 목요기도회

일시: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
장소: 동불교회(춘천로 380)
문의: 010-2278-5996

춘천 이스라엘 기도회

일시: 매주 토요일 오전7시 30분
장소: 무문초장교회(수풍골길 19)
문의: 010-5341-4150

“목숨을 통일은 우리의 힘에 보며 기도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춘천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

95차 기도회

2019년 11월 11일(월) PM 7:30

주향교회 본당

강원도 춘천시 새창말길 5, 070-8633-0363

문의: 이병철 목사(010-6254-3162)

강사: 정성진 목사 [(사)크로스로드]

협력 교회 및 단체

감사교회, 고은교회, 늘산영교회, 베드로선교센터, 순복음연합교회, 예사랑교회, 사랑교회, 사우동교회, 중부교회, 주향교회, 춘천우리교회, 무문초장교회, 예수전도단 춘천지부, CCC 춘천지부, 춘천기독교연합회, 춘천장로교연합회, 춘천성시화운동본부, 한아름선교회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주) 춘천구회 및 분회(사)크로스로드가 2019년 9월 현재 국내 14개, 해외 18개 지역부일과 4개 해외단체

www.jubileumi.com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2길 39-4 씨리얼하우스 202호

우편번호 06698 전화 02) 3478-0673 팩스 02) 3478-08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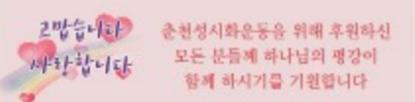


모 집

춘천성시화운동에 함께 하실 분들을 모십니다.

- 민들레 기도팀
- 성시 예배팀
- 성시신문 편집위원, 기자
- 그래픽, 영상, 인터넷 사역

문의: 010-9698-2993 (사무총장 김훈목사)

개인

가천홍 강은주 경동원 고순덕 고정희 곽해옥 곽 한국주 권경애 권여림 권영자 권윤인 권희자 권혁재 권현정 김경순 김경애 김경희 김관수 김교성 김금고 김금란 김기영 김도희 김두철 김태순 김영희 김문수 김미경 김미라 김미라 김미라 김미숙 김민섭 김보경 김복심 김복자 김삼옥 김상화 김성수 김설아 김성국 김성희 김세환 김수연 김수일 김숙희 김순덕 김순옥 김순필 김순희 김영관 김영명 김영수 김영순 김영일 김영태 김영희 김예은 김옥선 김옥선 김용태 김용기 김원중 김은아 김은희 김점자 김점미 김점숙 김점애 김정의 김정희 김종숙 김종숙 김종희 김종희 김종희 김주봉 김주혁 김지영 김춘화 김태관 김희자 김현주 김현철 김형옥 김혜련 김화분 나정희 남궁영자 남준섭 남하은 노길자 노은미 노정희 류현구 문현숙 민경원 민병순 민병일 민병일 박 현 박강준 박건성 박금과 박금희 박노향 박덕남 박동후 박동환 박민규 박영관 박문순 박민선 박미자 박미정 박성준 박성희 박선옥 박소영 박순배 박애자 박영호 박옥화 박은경 박은혜 박인근 박종일 박주환 박지인 박지혜 박지환 박창범 박준자 박필상 박형덕 박혜선 박 희 박희삼 방진선 배미정 배진철 배하나 백경일 서경숙 서요석 서성진 서순옥 서연숙 서은아 서현애 석지찬 성숙자 성관경 성희숙 송병서 손인규 손임순 손학관 송갑수 송미화 송수정 송영민 송정실 송창진 신건호 신경자 신금로 신달호 신동경 신미연 신안순 신영선 신옥심 신옥자 신은수 신종길 심규향 안순연 안현나 안현주 양봉남 양재순 양해경 어금옥 엄근혜 엄기흥 엄기훈 엄래연 여경주 연승숙 연정화 염은희 오성남 오재영 오홍금 오홍수 오용중 오영옥 원병영 원선미 원예슬 원유미 원학숙 원희정 유 근 유동열 유병문 유성현 유영재 유용규 유재란 유정희 유정선 유정순 유정희 유희자 윤금숙 윤기춘 윤성자 윤애자 윤영기 윤은미 윤은옥 윤정녀 윤정희 윤학병 윤홍숙 이기환 이광철 이광필 이규현 이기환 이동현 이영숙 이영순 이우식 이은희 이미숙 이미희 이병일 이병철 이보연 이성도 이성숙 이소영 이숙희 이순자 이숙희 이연화 이연희 이영규 이영문 이영준 이영진 이옥순 이은래 이은숙 이원일 이은규 이은주 이은경 이인숙 이재근 이재선 이재미 이재훈 이재현 이주영 이지영 이지영 이지은 이진주 이창주 이찬희 이홍훈 이태우 이하경 이현석 이현아 이해란 이해록 이효민 이희희 임덕수 임미화 임소희 임순희 임병용 임은희 임인숙 임재철 임정용 장기영 장동자 장소영 장지현 장진선 장창순 전은배 전정희 정계지 정국환 정규식 정영목 정복태 정복희 정선문 정성옥 정우진 정유빈 정은순 정은주 정은하 정인선 정인숙 정인순 정재인 정종승 정주환 정지혜 정진호 정치용 정현우 정경대 정경자 조남진 조문산 조상규 조성경 조소현 조영순 조원순 조원순 조은비 조성성 조종현 조진경 조현옥 주영호 주신자 지은성 지정훈 차재욱 차재관 천항호 최광우 최기숙 최문식 최동규 최영기 최은수 최미혜 최민희 최선이 최선에 최선희 최성현 최순희 최승경 최승태 최승화 최연화 최영순 최영희 최예쁨 최옥순 최윤영 최은숙 최은순 최인숙 최재중 최정락 최종대 최준민 탁광희 띠종호 하은옥 한영수 한은숙 한원순 한정순 한정연 한희현 허순영 허 열 허인영 허정자 현연희 현재용 홍은복 홍영숙 홍은숙 홍희표 홍인숙 홍은혜 홍택기 홍혜림 황금심 황기현 황영환 황은주 황정숙 황태을 박소영 정금옥 이병림 고순화 광복연 권영희 김기자 김다정 김명선 김미향 김옥분 김용선 김주현 김향자 박남영 박소현 박영민 박윤철 박정관 배영순 배하나 배한솔 백은학 변영숙 영정원 오성애 오소연 우혜진 원희숙 유나예 유정선 윤영숙 윤서경 이연숙 이영순 이정숙 이춘선 정경수 전수진 조영자 지영필 지은음 자유진 최미정 최민기 하원자 하은희 한성우 함서현 홍기수 김중목 이은자

후원교회

강원침례교회 가성침례교회 그말씀양문교회 금산교회 나눔성경교회 동신장로교회 사랑의교회 사안성령교회 새춘천교회 석사강리교회 소양재일교회 순복음연합교회 순복음제일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신복교회 신성강리교회 아이교회 영마오교회 예사랑교회 예수촌교회 옥산침례교회 은누리교회 우두림리교회 주의숨교회 주천영교회 주향장로교회 축복교회 춘천광명교회 춘천광명교회 춘천동부교회 춘천그리스도의교회 춘천명성교회 춘천예당교회 춘천우리교회 춘천은혜교회 춘천일신교회 춘천제일강리교회 춘천제일장로교회 춘천침례교회 춘천명화교회 한빛교회 한울성교회 화곡교회 협동교회 후평제일교회

후원기관 및 사업체

JDM 춘천와이신형 영광한의원 매일관광 행복재가요양기관 건강한사회를위한시민단체 아가갤러리 베드로선교센터 월드비전 설곡사기도원

*명단에 누락이나 오차가 있을 수 있으니 연락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 033-256-1260

춘천성시신문을 개별 배송 원하시면, 이름과 주소를 문자로 남겨 주세요. (033-256-1260)

샤스민

매 주일은 휴무입니다

월-토 : 11:00~22:00

Break Time : 15:00~17:00(평일)

정통 중국요리 전문점

Tel : 033-241-5453

춘천시 우묵길74번길 14

샤스민은 각종 모임, 회식, 상견례 등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고급스러운 분위기, 친절한 서비스, 최고의 맛으로 여러분의 외식문화를 한 차원 높여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